

# 호랑이, 천적을 넘어라

KT·키움전 상대전적 열세 불구  
마운드 호투로 징크스 깬지 관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북수혈전을 꿈꾼다. KIA는 kt 위즈와 5-6일 수원 원정전을 치른 뒤 광주로 돌아와 키움 히어로즈와 주말 2연전을 치른다. 현재 KIA는 포스트 시즌을 꿈꿀 수 없는 처지다. 승률 5할을 거두지 못하는 탓이다. 120경기를 넘게 치렀지만 아직 60승 고지를 밟지 못했다. 5위 NC다이노스와의 6-8경기차를 오가고 있다.

이처럼 KIA가 가을야구에서 멀어진 것은 천적들 때문이다. 천적은 바로 두산 베어스를 비롯해 kt, 키움이다. KIA는 이들을 상대로 처참한 성적표를 작성했다. 승률이 3할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다. 두산전 3승 9패를, KT전 4승 10패를, 키움전 4승 8패 1무를 기록했다. 약체로 분류되던 KT를 중위권으로 도약시키고, 두산과 키움을 일찌감치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 짓도록 도운 공이 됐다. 만일 이들에게 절반만 승리를 거뒀더라도 KIA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가을 야구 가능성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복수를 다짐한다. 패배의 아픔을 씻고 징크스를 깨기 위해 승리를 노린다.

마침 KIA의 기세가 좋다. 마운드의 호투, 제때 터져주는 타선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중이다. 특히 선

발진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덕분에 최근 연승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선발진에는 김기훈과 터너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로테이션상 KT전에 뛰게 된다. 김기훈과 터너는 지난 주 팬층은 컨디션을 보여 기대된다. 김기훈은 NC전 5이닝 2실점 2자책점을 기록하며 승리투수에 올랐다. 터너 역시 롯데전에서 7이닝 2실점 1자책점으로 승리를 따냈다.

이들은 KT전 경험도 있다. 터너는 타선 지원이 따르지 않아 패전에 이름을 올렸지만 5이닝 2실점 2자책점을 기록, 제몫을 해줬다. 김기훈도 나쁘지 않은 공을 던졌다. 4이닝 2실점 2자책점을 기록했다. 피안타율은 0.200에 그쳤지만 사사구가 많았다. 볼넷만 7개를 던져 투구 수 관리에 실패해 5이닝을 넘기지 못한 점이 흠이다.

키움전에는 선발이 불투명하다. 후보로는 임기영, 이민우, 양현종이 있다. 5선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임기영과 이민우 중에 누가 나설지는 장담할 수 없다. 최근 이민우와 임기영 모두 호투했기 때문이다. 또 키움전 이민우가 부진했던 것과 임기영이 경험이 없는 것도 고려한다면 이들의 컨디션에 맞춰 선발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현종은 우천취소로 인해 등판이 미뤄지지 않는 이상 8일 경기에 등판할 전망이다. 야수들 실책으로 위기에 빠졌던 한화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6이닝 5실점 1자책점을 기록한 그가 이번에도 호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경국 기자 hkk42@srb.co.kr



역투하는 김기훈. 뉴스

## 류현진, FA 시장 나설까

MLB닷컴 “건강할 때 효과적” 평가

류현진(32·LA 다저스)은 내년 시즌 어느 유니폼을 입게 될까. MLB닷컴은 3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한 팀에서만 뛰었지만, 이별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 13명을 선정했다.

올 시즌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류현진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커리어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을 순위로 매겼고, 류현진은 11번째로 언급됐다.

매체는 “다저스는 2013시즌을 앞두고 류현진을 한국에서 데려왔다. 32살의 이 선수는 건강할 때 매우 효과적이었다. 2019년에도 이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시즌을 마친 뒤 류현진은 다저스의 켈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여 잔류했다. 류현진과 다저스는 플레이오프가 끝난 뒤 협상을 타결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도 “이번에는 그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켈리파잉 오퍼는 한 번만 제시할 수 있고, 다저스는 이미 이 한 번을 사용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25경기에서 12승5패 평균자책점 2.35로 활약하고 있다. 최근 3경기 부진으로 평균자책점이 1점대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전체 1위를 지키고 있다. 빅리그 데뷔 후 가장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류현진과 다저스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류현진 외에는 펠릭스 에르난데스(시애틀 매리너스), 브렛 가드너(뉴욕 양키스), 아담 웨인라이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라이언 짐머



맨(워싱턴 내셔널스), 매디슨 범가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알렉스 고든(캔자스시티 로열스), 앤서니 렌덴(워싱턴), 제이슨 컵니스(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호세 아브레우(시카고 화이트삭스), 콜 칼훈(LA 에인절스), 카일 김슨(미네소타 트윈스), 잭 휠러(뉴욕 메츠) 등이 올 시즌 뒤 팀을 떠날 수 있는 선수에 포함됐다. 뉴스

## 전남테니스, 대통령기 전국생활체육대회 정상

금·은·동 각 3개 종합 우승

전남테니스가 제9회 대통령기 전국생활체육테니스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일궈내는 기염을 토했다.

전남테니스협회(회장 전조일)는 지난 1일까지 전북 완주테니스장 등 5개 구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각각 획득하며 종합 우승기를 휘날렸다.

이로써 전남 테니스는 지난 5월 문경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기전국생활체육테니스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3개월여만에 또 다시 우승기를 휘날렸다.

전남도 생활체육 테니스 동호인 50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테니스협회에서 선수단 1천명이 참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이자 최고 권위의 생활체육 테니스인들의 축제인 것이다.

이번 대회는 남자부(1조/2조), 여자부(1조/2조), 이순부(1조/2조), 혼합복식부로 구성된 선수단이 연령별 3복식 단체전으로 경기를 치



전남테니스가 최근 전북 완주에서 열린 제9회 대통령기 전국생활체육테니스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렀으며, 예선에서 조별 리그전으로 각 조 1, 2위를 가리고, 본선에서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전남테니스는 각 부문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뒀다. 남자 1조에서 금메달을 시작으로 여자 1, 2조 모두 금메달을 획득

한 전남테니스는 장년부 단식, 이순 1, 2조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남자 2조와 혼합복식, 청년부 단식에서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비롯해 총 9개의 메달로 ‘개최지’ 전북을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87생기자 gingullove@srb.co.kr

## 목포시청 女하키, 전국체전 4강 진출

8강서 아산시청 완파... 동메달 확보

목포시청하키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여자 일반부 사전경기에서 4강 진출에 성공했다. 목포시청 하키팀(감독 배상호)은 4일 충남 아산 학선하키팀경기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열린 8강전에서 ‘강호’ 아산

시청을 2-1로 힘겹게 누르고 4강에 진출함과 동시에 동메달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난 2일 제주 국제대와의 첫 경기에서 4-1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던 목포시청은 아산시청까지 물리침으로써 전남도선수단에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첫 메달을 선사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목포시청 하키팀의 예상 밖 선전에 힘입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지난해 성적(종합10위)을 능가한 한자릿수 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남선수단에 희소식이 전해질과 동시에 선수단 사기 앙양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시청은 이날 8강전에서 ‘국가대표 군단’ KT를 승부타 끝에 이기고 올라온 인천광역시체육회와 6일 같은 장소에서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한판 혈투를 벌인다. 87생기자 gingullove@srb.co.kr